

# 창의성과 창조적인 생각



교장 민 병 준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라이트 형제. 그들은 새처럼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꿈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어른들에게 '왜 인간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른들의 대답은 인간에게는 새처럼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 수 없다는 핀잔과 조롱뿐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날개가 없고 또 날개를 달 수 없다면, 날개 달린 물건을

만들어 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수십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집념과 확신은 결국 인간을 새보다 높고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의 발명은 전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창의성은 인류에게 편의와 안락을 주는 창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누구나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과 발상으로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진리란 단순합니다.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명증(明證)한 진리를 깊이 추구해 나가다 보면 인간이 지닌 통념을 깨고 얼마든지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져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낸 뉴턴, 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는가 하는 의문 끝에 인공위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예들을 많이 접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은 우리가 평범하게 대할 수 있는 일들을 '왜'라는 물음으로 다시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이란, 그가 지닌 창의적인 발상이 인류 생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자 만들어진 원자력을 인류의 파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결코 창조적인 생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창조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우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물을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평범한 사실에 끊임없는 의문을 갖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목욕탕의 물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는 '왜'라는 물음 끝에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날개가 없는 인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대신에 날개가 달린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봅시다. 발상의 전환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하나 하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항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

## 창의성과

창조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우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실에

끊임없는 의문을

갖는 것…

”